가와카미의 요시노 벚꽃

요시노야마 산의 벚나무는 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인과 수행승, 여행자들로부터 칭송받았습니다. 그 벚꽃은 905 년경에 완성된 시집 '고킨 와카슈'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요시노 벚나무의 명성은 계속 높아졌습니다. 요시노야마 산이 벚나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니 19 세기 후반에 새롭게 밝혀진 한 교배종은 이 지역과 아무 연관이 없는데도 헷갈리게 '요시노 벚나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실제로 요시노 지방에서 가장 흔한 벚나무는 산벚나무(야마자쿠라)입니다. 이렇듯 풍부한 벚나무는 지역 전설에서 기인합니다. 671 년, 승려이자 신비주의자였던 엔노 교자(634 년~701 년경)는 고통받는 이들을 구하는 일에 신의 도움을 받고자 기도하러 긴푸센 산을 올랐습니다. 석가모니(역사적으로 실재한 부처)와 미륵(미래에 나타날 부처), 천수관음보상이 차례로 엔노 교자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관대한 신들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교자는 계속해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절벽이 크게 울리며 흔들리더니 천둥이 요란하게 치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쪼개진 바위 틈 사이로 불길에 휩싸인 무시무시한 형상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앞선 세 명의 신이 지닌 힘을 모두 합친 신의 화신, 자오곤겐이었습니다.

교자는 자오곤겐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근처의 산벚나무를 잘라내서 신상을 새겼습니다. 그때부터 벚나무는 자오곤겐과 연관성을 갖게 되었고 수많은 벚나무가 산에 바쳐졌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벚나무가 확산되었고 명성도 높아졌습니다. 오늘날 벚나무는 경관을 특징짓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와카미는 봄철 벚꽃 명소로 잘 알려지지 않아 벚꽃철이면 항상 붐비는 공원이나 산책로를 대신하기에 충분히 멋진 곳입니다. 특히 아키쓰노오노 공원은 잔잔한 개울과 이끼로 뒤덮인 넓은 공간이 있어 평화롭게 벚꽃을 감상하며 피크닉을 즐기기에 좋습니다.